

2021년 01월 23일 1차 당원토론회

주제: 선거연합의 원칙은 무엇인가?

참여: 부순정, 이진아, 김순애, 정화빈, 김명완, 안재홍, 김선, 박은서, 박소희, 현성미, 한은정, 김영란, 김송기은(불규칙적 참여), 이은호(전국당)

1. 의견 정리

1) 녹색당의 강령에 비추어 본 선거연합

- 선거연합 목적이 녹색당의 취지와 타당의 연합 요청 취지와 전혀 다르다
-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원칙을 뒤로 두고 원내진입을 목표로 연합 논의
- 연합을 논할 때 어떤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?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당의 역할과 함께 고민 필요

2) 당내 토론과 노선 경합을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

- 선거연합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과 판단보다 당내 의사소통이 문제
- 모호한 강령의 언어. 좌파와 중도의 언어들 혼재. 갈등을 받아들이고 당원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체계 구축 시급
- 세밀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, 당원들의 참여 고민이 우선
- 중요원칙은 절차적 정당성과 약속을 지키는 것, 지난 선거에서는 토론과 당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당원총투표 강행. 74% 당원이 찬성한 결과를 선본과 전운위에서 취소한 것은 문제. 당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. 결정되면 인정하는 문화 필요. 자신의 생각을 뜻이 다른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 필요
- 타국 녹색당의 경우 당내 세력화 노선 투쟁이 활발. 한국녹색당 내에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 여건에 대한 고민 필요
- 당내 다양한 노선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노선간의 발전적 경합 필요
- 분파, 당내 갈등은 건강한 정당 문화. 갈등을 회피하는 게 문제/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당내 분위기. 74%가 선거연합을 찬성한 선거 결과/원칙주의자 당원들이 입장을 개진했을 때 그에 대한 활발한 피드백 부재

3) 강령에 대한 점검

- 강령의 모호성, 포괄성 등에 대한 재조명 필요
- 강령의 많은 내용 중 주요하게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한 합의 필요
- 당내 노선투쟁 부재/ 강령의 추상성이 우리 성격 희석. 정책의 선명성, 방향의 구체성 필요
- 강령은 추상적일 수도 있다. 정세와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 치열한 토론 필요

- 녹색당이 좌파와 중도를 포괄하는 강령이라고 생각. 분당이 되지 않는 한 갈등 지속될 것이고 서로의 노선을 포괄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야
 - 녹색당이 지난 총선 기후위기 대응 정당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 했는데 녹색당의 정책적 선명성이 떨어지는 시대 도래, 지금은 강령과 노선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해서 나가야할 시기

4) 기타 의견

- 녹색당은 당선가능성과 멀다. 선거를 통해서 비전을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에너지 쏟아야. 선거라는 열린 공간 활용에 주력
- 제주 지역에서 선거연합이 이뤄질 때 해군기지 문제(평화, 공군기지), 탈성장에 대한 동조, 제주 현안에 대해 같이 투쟁했던 정당과는 선거연합 가능
- 과거 문대림이 지선 말미에 제2공항 전면 백지화 주장. 현장에서의 지속성도 동시 고려 필요
- ‘탈’이라는 용어보다 전환의 방향, 적극적인 전환의 태도 필요
- 녹색당이 대중정당을 지향한다면 대중성 확보 방법 고민 필요
- 민주당은 싫어하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당원들 존재
- 정당 목적은 정권 획득. 누구와 연합을 하던 정당의 활동을 통한 사회적 진화가 목적이 되어야
- 녹색당은 걸음마 단계, 과정의 미숙함은 당연. 여유와 기다림 필요
- 녹색당의 가장 큰 과제: 미숙함을 인정하고 토론과 교육 구조 구축, 같이 당을 만들어가는 자세
- 사전 당내 토론 기회 많아야 하고 한국녹색당이 서있는 지점 점검, 당내에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리하는 작업 필요

2. 그린씨 정리 의견:

- 토론이 합의로 향하지 못하고 분열과 상호 비난으로 귀결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곤란
 - 궁극적으로 녹색의 가치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모호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
- 녹색당 안에는 모호한 이념적 지향 아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들 존재,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교조적 원칙은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마음들이 만나 논의하고 토론하고 대결하면서 공통의 지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설정이 필요
- 다양한 입장들 사이의 종합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을 녹색전환을 향한 투쟁으로 모아내는 대항 헤게모니를 구성하기에 역부족

3. 앞으로의 고민 방향

- 강령에 대한 토론 필요: 더 선명한 원칙을 담을 것인가? 현재와 같이 포괄적이면서 정세에 맞는 토론을 활성화시킬 것인가?
- 녹색당이 서 있는 지점에 대한 토론
- 녹색당 내 조금씩 다른 결을 가진 당원들이 당내에서 정치적 입장에 대해 솔직하게, 발전적인 토론 문화 정착, 그 과정적 결과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
- '탈'이라는 용어를 넘어선 전환 방향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정립